

---

碩士學位請求論文

初等學校 兒童들의 價値觀 研究

— 濟州地域의 都市·農村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昶 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金 潤 鉉

1997年 8月

# 初等學校 兒童들의 價値觀 研究

— 濟州地域의 都市·農村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昶 範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金潤鉉



金潤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高性俊  
審査委員 張元碩  
審査委員 安昶範

〈國文 抄錄〉

## 初等學校 兒童들의 價値觀 研究

- 濟州地域의 都市·農村을 中心으로 -

金 潤 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安 昶 範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관 교육의 중요한 시점인 초등학교 시절, 그들에게 형성되고 있는 가치관을 조사하고, 지역별·학년별·성별에 따라 그 실태와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가치관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25개 문항을 작성하여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제주 시내 및 읍·면 소재지의 소규모 학교 16개교를 표집학교로 선정하여, 초등학교에서 가치판단 능력이 비교적 성숙되었다고 보이는 5·6학년 학생 1094명을 연구자의 임의로 표집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 및  $X^2$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주체관 영역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농촌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가정·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치관 교육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사회적 공동체관 영역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치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우 의식과 형제 우애 의식 등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회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성인들의 행동과 처신에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었다.

3. 민족-국가관 영역은 민족적 자존 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국가관은 긍정적이며 자긍심이 투철한데, 반하여 정치가에 대한 불신과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치가들의 각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었다.

---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目 次

## 國文抄錄

I. 序論 .....	1
1. 研究의 意義 .....	1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	3
II. 價值觀教育의 理論的 背景 .....	5
1. 價值觀의 定義 .....	5
2. 價值觀의 性格 .....	8
III. 價值觀教育의 社會的 背景 .....	12
1. 傳統的 價值觀과 現代的 價值觀의 葛藤 .....	12
2. 價值觀 教育의 役割 .....	16
IV. 調查結果의 分析 및 解釋 .....	20
1. 個人的 主體觀 .....	21
2. 社會的 共同體觀 .....	30
3. 民族 - 國家觀 .....	45
V. 要約 및 結論 .....	56
1. 要約 .....	56
2. 結論 .....	60
參考 文獻 .....	62
〈Abstract〉 .....	65
附 錄 .....	67

## 表 目 次

〈표1〉 연구대상 .....	4
〈표2〉 영역별 문항구성 .....	4
〈표3〉 자아 존중의식 .....	21
〈표4〉 자율의식 .....	22
〈표5〉 책임 의식 .....	23
〈표6〉 여가 선행의식 .....	25
〈표7〉 학업관 .....	26
〈표8〉 신앙의 유무 .....	28
〈표9〉 신앙관 .....	30
〈표10〉 교우의식 .....	32
〈표11〉 교우간의 신뢰의식 .....	33
〈표12〉 질서의식 .....	34
〈표13〉 우애의식 .....	35
〈표14〉 공중도덕관 .....	37
〈표15〉 봉사의식 .....	38
〈표16〉 사회관 .....	40
〈표17〉 존경하는 교사관 .....	41
〈표18〉 은사관 .....	43
〈표19〉 직업관 .....	44
〈표20〉 장래의 희망 직업관 .....	45
〈표21〉 정치가에 대한 신뢰도 .....	47
〈표22〉 정치가들의 의견 대립 원인에 대한 견해 .....	48
〈표23〉 국가관 .....	49
〈표24〉 향토관 .....	51
〈표25〉 동포의식 .....	52
〈표26〉 통일관 .....	53
〈표27〉 통일의 저해요인 조사 .....	55

# I . 序論

## 1. 研究의 意義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고 이를 내면화시키는 일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누구나 절감하면서도 우리의 교육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인지적 영역에 치우쳐 그 동안 가치관 교육을 뒷전으로 밀려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후 30여년 간 급속도로 전개된 산업화, 공업화라는 사회·경제적 대변혁으로 인하여 물질만능주의, 물질지상주의에 빠져 인간성을 위축시키고, 인간 정신을 파멸로 몰아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써, 국민이 낸 세금을 관리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거액을 착복했는가 하면, 「지존파」라는 이름의 폭력배들이 끔찍한 연쇄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후회의 빛은 커녕 도리어 세상을 닦하는 소리를 거침없이 내뿜는 것을 보아 왔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삼풍사고, 성수대교 참사, 일부 高位 관리의 金品 收受행위 등은 우리 성인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 사회는 어떤가? 텔레비전·비디오·컴퓨터·잡지 등의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여과되지 않는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그들에게 정신적 소화불량을 일으켜서 관능적 욕구만을 자극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겸손과 양보의 미덕은 욕구 충족과 성취위주의 논리로 바뀌고 말았다.

예를 들자면, 술취한 대학생들이 교정의 불상에 발길질하는 것을 말리는 교수에게 집단 폭행을 하는가 하면, 담배값도 벌지 못하는 아버지라고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도 생겨났다. 또 장교만을 골라 사살한 사병이 제 목숨을 끊는 사건,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 학교 주변에서 동료의 금품을 갈취하는 학원 폭력배 등 그 예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문명과 현대 교육에 있어서 내재적 가치인 '지성·도덕성·경건성'을 강조하는 '사람됨 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고, 외현적 가치인 과학·물질만을 강조하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결과로 정신적·목적적 가치가 물질적 수단적 가치에 압도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관 혼란 내지 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학교교육에서 만이라도 이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식이나 기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간의 情意的·意志的 특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가치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학교 교육의 일차적 책무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지녀 생활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11.12세 이전)에 형성된 가치관은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국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또한 이 때 형성된 가치관은 교정하기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가치관 교육을 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초등학교에서 계획적인 가치관 학습을 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농촌 초등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조사하고 그 실태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 바람직하고 차등화된 가치관 교육에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모색하기 위한 示唆點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 1) 우선적으로 가치관 교육의 이론적·사회적 배경을 밝힌다.
- 2) 제주지역 초등학교 아동들의 자아의식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국가-민족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 분석하여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 3)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都,農間·學年間·性別間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究明하고, 거기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데에 목적을 둔다.

##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 1) 연구의 범위

(1)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실제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문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2)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가치관을 크게 자아관, 공동체관, 국가-민족관으로 나누고 세분하여 25개 문항을 작성했다.

(3) 본 연구는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집학교는 제주시내 초등학교 4개교와 읍·면소재지의 소규모학교 12개교를 연구자의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아동수를 거의 비슷하게 선정하기 위해서이며, 5·6학년 아동을 모집단으로 한 것은 이들 학년이 초등학교의 상급 학년으로서 가치판단 능력이 비교적 성숙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지역 소재 16개 초등학교(도시지역 4개교, 농촌지역 12개교)에서 5·6학년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토록 하였다. 도시·농촌 학교수의 차이는 조사 아동수의 균등분배를 위해 표집했기 때문이다. 질문지는 1140부 배부하여 1094부를 회수(95.69%)하고 통계 분석하였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연구대상

지역별 학년 성별	도시		농촌		계
	5	6	5	6	
남	135	136	124	152	547
여	135	129	131	152	547
계	270	265	255	304	1094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안연모가 제작하여 사용했던 질문지 내용과 박종희가 제작하여 사용했던 질문지 내용을 지도교수의 조언을 얻어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새로 작성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 ① 개인적 주체관(7문항)
- ② 사회적 공동체관(11문항)
- ③ 민족-국가관(7문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질문지의 영역별 문항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영역별 문항구성

가치관 영역	문항수	질문내용
개인적 주체관	7	1)자아존중의식.2)자율의식.3)책임의식.4)여가선용의식. 5)학업관. 6)신앙 유무.7)신앙관.
사회적 공동체관	11	1)교우의식.2)교우간의신뢰의식.3)질서의식.4)우애의식. 5)공중도덕의식.6)봉사의식.7)사회관.8)존경하는교사상. 9)은사관.10)직업관.11)장래 희망직업.
민족-국가관	7	1)정치가에 대한 신뢰도.2)정치가들의 의견 대립에 대한 견해. 3)국가관.4)향토관.5)동포의식.6)통일관. 7)통일의 저해요인에 대한 견해

(3) 자료처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처리는 각 문항에 따라 전체적 분포와 지역별 · 학년별 · 성별 분포를 실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모두 실수이지만 결과를 해석하는데 사용된 백분율은 반올림하여

나타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program을 사용하였고  $X^2$  검증으로 유의도(P)는  $P=0.05$  기준으로 하되  $P=0.000$ 도 나타났다.

### 〈통계에 나타난 용어의 의미〉

☆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패키지

☆ DF(Degree of Freedom) -----자유도

☆  $X^2$  (카이자승) ----- 빈도분석 (기대치와 결과치의 검증)

☆ P-----의의도(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도는 5% 수준에서 이루어짐)

## Ⅱ . 價 值 觀 教 育 의 理 論 的 背 景

### 1. 價 值 觀 의 定 義

하나의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한다. 가치관이란 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생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치관이 잘못 되어 있다"든지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든지, 혹은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말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지려고 할 때나, 가치관의 문제를 논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파악되어야 할 과제는 가치의 의미를 검토하고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가치 또는 가치관이라는 말을 사용한 역사는 꽤 오래 되었으나,

가치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Axiology」라고 불리는 가치론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겨우 그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역사가 백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가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특정한 형태의 가치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플라톤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선, 행복, 정의와 같은 윤리적인 가치들과 미와 같은 예술적인 가치 및 성스러움과 같은 종교적인 가치들이 그들의 고유의 영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학문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은 道德的이고 倫理的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가치관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가치관에 대한 정의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영역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념만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교육학에서 가치나 가치관의 개념은 문화적,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치와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며 가치관은 가치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Kluckhohn은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가치와 가치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가치(Value)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을 구별하는 內顯的 혹은 外顯的 概念으로서, 그것은 행동의 여러 가지 가능한 양식과 手段, 目標 중에서 선택할 때,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고, 가치관(Value orientation)이라 하는 것은 자연 속의 인간의 위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 대 자연,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sup>1)</sup>이라 하였다

1) 金誠 (1977), 「價値觀 教育의 改善을 위한 基礎 研究」, 韓國教育開發院, p.17. 再引用

黃禎奎는 가치관이란 여러 가지 심리적 대상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좋다, 나쁘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옳다, 그르다 라는 판단 방향을 갖는 개인의 내면화된 文化 규범인 가치가 여러 가지 사태에서 어떤 방향 감각을 갖고 일관성있게 內顯, 外顯하도록 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 된 개념<sup>2)</sup>이라고 하였다.

또한 洪承稷은 가치관을 두 개 이상의 대상 중에서 그 어떤 것을 택하게 하는데 에 기준적 역할을 하는 개념 체계<sup>3)</sup>라 하였고, 車京守는 가치관을 사람들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경향의 반응으로서 사물이나 행동에 대하여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 또는 가치 기준<sup>4)</sup>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朴俊熙는 가치관을 옳다, 좋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등과 같이 목표 지향적인 의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朴容憲은 가치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치관은 가치라고 하는 개념과 유관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 가치와는 달리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서 문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며 따라서 가치관은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 있게 되고 또 있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표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 내용으로서의 가치관이 개인의 심리 조직에 내면화되어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심층적 특성의 구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터는 가치관을 사회적 심리 특성의 하나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관, 직업관, 성윤리, 국가의식 등은 모두 가치관과 관련을 가진 개념<sup>5)</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

朴容憲이 종합한 학자들의 가치관에 대한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치관은 문화적인 산물이나 개인의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되어 동기

2) 黃禎奎(1968), 「教育評價」, 서울 : 教育出版社, p.611.

3) 洪承稷(1972), 「韓國人的 價値觀 研究」, 서울 : 高麗大學校, 出版部, p.12

4) 車京守(1978), 「韓國教育의 社會的 課題」, 서울 : 배영사, p.78.

5) 朴容憲(1979), 「全人教育의 理論과 實際」, 「價値觀의 教育」, 서울 특별시 教育委員會, p.282.

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가치관은 개인의 심리적 체계에 내면화되어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은 아니며 지극히 추상적인 관점이라는 점.

셋째,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 기준 내지 신념이라는 점.

넷째, 이런 신념 내지 이념은 개인의 심리적 조직을 체계화해서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극히 필요하다라는 점.<sup>6)</sup>

이상과 같이 가치관의 개념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가치관은 개인 생활, 사회 생활, 국가 생활에 있어서 행동의 목표와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동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의 규준이 되고 인간 행동 방향의 요인으로 태도 결정에 동기를 부여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우선적 문제는 目的的 가치와 手段的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 수단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로서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편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수단적 가치는 그 자신으로서는 어떤 가치도 가질 수 없다.

이에 반해 목적적 가치는 본래적 가치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수단적 가치는 목적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방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혼란이란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전도를 말한다. 예컨대, 황금이나 돈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으로 구입하는 어떤 것 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가장 생생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게 된다.<sup>7)</sup>

## 2. 價値觀의 性格

6) 朴容憲 (1970), 「態도와 價値觀의 研究」, 서울: 배영사, p.125.

7) 張燦翊(1989), “現代 社會와 價値觀” 「首都 教育」 11月號, 서울특별시 교육 연구원, p18

## 1) 價値觀의 役割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도움과 지표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가치관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代案間의 장점을 판단하고 개인의 진로 선택, 배우자 선택 등 장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확고한 자세와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혹은 미래를 設計하는데 있어서 훨씬 能動的이고 적극적일 수 있다. 또한 경제, 사회, 국제관계가 급변하고 복잡하게 될수록 그 기초가 튼튼하고 확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는 이유를 L.S.Kemvorthy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가치관을 재 고찰하는 동시에 새롭게 출현하는 가치관의 적절성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8)</sup>

대중매체 특히 TV의 급격한 보급과 함께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하여 가치관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混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가치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해 가고 있다고 보겠다.



## 2) 價値觀의 特性

가치관의 특성에 대해서 洪承稷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첫째,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학습된다는 것은 배워서 이루어진다는 意味이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 교육, 연습, 경험 등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뜻이다.

둘째,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가치관은 일관성과 함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의 안정성은 가치관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오랜 시일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된 사회의 가치관

8) L.S.Kemvorthy, 『Social Studies for the Eighties, John Wiley & Sons, 金斗煥(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 대학교, p6 再引用.

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치관이 상당 기간 안정적이라는 것은 영구 불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와 같이 사회변동이 심하고 사회구조와 문화 구조의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갈등을 가지기 쉽다. 한국 사회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의 차이 및 서구적 가치관과 동양적인 가치관이 함께 공존해 있다.<sup>9)</sup>

그러므로 한국 청소년들은 서구적인 가치관과 동양적인 가치관 사이에 갈등을 느끼며 역사적 전통과 상대적 빈곤 의식, 사회 부조리 등이 원인이 되어 기성 문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경험하는 것이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3) 價値判斷의 基準

가치관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가치의 위계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의 위계질서는 가치들간에 중요성의 서열을 매겨 주고 있으며, 우리가 당면한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까?를 지시해 주기 때문이다.

셀러는 가치의 서열을 매김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sup>10)</sup>

(1) 제1의 표준은 “持續性的 표준(The Criterion of Duration)”이다.

오래 지속되는 가치 대상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변화 가능한 가치물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가치는 영속적인 것일수록 그 서열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쾌락의 감정은 그것이 존재하는 형편이 계속되는 동안 만 존속하는데 비해, 喜悅은 그 조건이 사라져도 그 존재를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喜悅은 쾌락보다 높은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9) 東京守, 前掲書,p135.

10) 金騏淳(1989), “가치관의 본질”, 「가치관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P24~26에서 再引用.

(2) 제2의 표준은 “分割 가능성(Divisibility)”이다.

가치는 分割되어도 감소하지 않고, 연장해도 증가하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물질적 가치는 그 물질이 분할 될수록 개인들이 차지할 몫이 감소하나, 정신적 가치는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수에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물질적 가치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지만, 정신적 가치는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3) 제3의 표준은 “根據性(Foundation)”이다.

만일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의 근거가 되면, 그것은 다른 가치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

가치의 본질 관계에 있어서 높은 가치는 낮은 가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용성의 가치는 유쾌함의 가치나, 생활 가치 및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셀러는 모든 가치들은 종교적인 궁극적 가치들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價值一元論에 復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4) 제4의 표준은 “만족의 深度(The depth of satisfaction)”이다.

가치의 心情的 지각에 수반된 만족의 깊이와 가치들의 위계질서 사이에는 본질적인 관계가 있으나, 가치의 위계질서는 그것이 생산한 만족의 깊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물질적인 만족은 강렬하기는 하나 표면적인데 그치지만, 예술의 감상에서 오는 만족은 깊은 내적 경험인 것이다.

(5) 제5의 표준은 “相對性(Relativity)”이다

가치란 그것이 무엇에 의존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그 가치의 서열은 그에 반비례하여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의 가치는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다. 즉 도덕의 가치는 쾌락이나 생명의 가치보다 서열이 높은 가치인 것이다.

셀러는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표준을 적용하여 가치 선택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 서열 표를 만들었다.

이 가치 서열 표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단계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끼리 충돌하고 개인이 그 상황에서 선택의 岐路에 설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은 될 수 있지만 사람마다 고유한 상황이 있고, 자기 나름의



고유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변의 가치 표는 될 수 없다.

가치 서열 표는 다음과 같다.

(1) 감성적인 감정의 가치들(The values of sensible feeling)로서 쾌와 불쾌의 감정에 대응하는 것이며, 서열상 최하위

(2) 정신적인 가치(The spiritual values)들로 그것은 다시

① 미와 취의 가치(순수한 미학적 가치)

② 정당함(The Just)과 부당함(The unjust)의 가치 (옳음과 그름의 가치와 다름)

③ 진리에 관한 순수한 지식의 가치(The values of pure knowledge of truth)로서 철학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과학과 문화의 가치들이 이에 속함

④ 성스러움(The holy)과 불경스러움(The unholy)의 가치로서 종교적 가치가 이에 해당됨.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음.

이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당면하는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치의 표준과 가치의 서열표를 살펴 보았다.

### Ⅲ. 價値觀教育의 社會的 背景

#### 1. 傳統的 價値觀과 現代的 價値觀의 葛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의 혼란은 “靜態性·垂直性”으로 대표되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과 “動態性·水平性”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가치관 갈등 상황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의 구체적 덕목들은 한결 같이 이 수직적 구조와 정태성을 형성 원리로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아는 수직적 구조에

의 연대 속에서만 확인된다.<sup>11)</sup>

수직적 사회형성의 위계·혈연적 연계·지역적 동질성 등은 어떤 윤리적 가치에도 선행하는 本有的인 것으로서 수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忠·孝·禮와 같은 전통 사회의 가치는 바로 그러한 垂直體系, 靜態性的 체계에서 고찰될 수 있다.

“忠”은 수직적 구조로 인식되는 모든 삶의 조건에서 요청되는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삶의 奉事를 의미한다. 그 대상은 보다 강한 힘이어서 귀의 일 수 있고, 보다 안전한 것이어서 바름(正)이나 진리일 수 있다. 그것에서의 이탈은 근원적인 질서의 파괴일 뿐 아니라, 결국 자기상실에 이를 수밖에 없다.

“孝”는 忠의 가족 단위에서의 變形態로서 근원적으로 生理的 事實에 근거하고 있다. 즉 혈연 공동체에서 요청되는 당위로서의 덕목인 것이다. 조상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혈연의 필연에 대해서는 어떤 물음도 불가능하며, 이러한 고리에서는 어떤 권위도 구체성을 떨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설명 불가능한 권위에의 존경과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隸屬的인 의무가 이상적인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禮”는 靜態性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가치 체계의 생활화이다. 情態性이란 이미 秩序지위진, 그래서 그 精華에서 가장 지향해야 할 가치 규범에 대한 기술이다. 사회의 복합적인 현상은 禮에 의하여 바람직한 조화로우음을 기하게 된다. 따라서 예는 사회 통합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사회 변동에의 제어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 사회의 가치 체계나 덕목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치 체계형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가치관으로의 전이는 서구 문물의 이입과 더불어서 시작되는데, 즉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바로 垂直 구조의 붕괴로 나타나 자기 奉仕의 대상으로서의 절대적인 것이 소멸

11) 孫仁錄(1982), 「韓國人的 價値觀」, 서울: 文音社, p.65.

손인수는 이러한 垂直的 構造의 근원을 儒敎에서 찾는다. 즉 家族中心的인 父權의 權威主義가 傳統的인 韓國의 孝, 序列 尊重, 祖上崇拜 등의 價値意識을 가져왔다고 본다.

과 더불어 사물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선형적인 전제를 배제하면서 분석적 인식의 이성적 판단을 그대로 사물 이해의 원칙이게 한다. 이제 수동적 승인이나 무조건적 귀속을 요청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과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드러나고, 그러한 水平的 意識이 문화를 지배한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에서는 절대적 공동체나 혈연집단의 의미가 감소하고 고독한 자아 의식이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게 된다. 개개인간이 스스로 主人이 되어 삶을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動態的 구조를 갖게 되며, 그 덕목 역시 동적 성격을 갖게 된다. 현대사에서 요청되는 덕목은 따라서 義·誠·創造가 된다.<sup>12)</sup>

“義”는 전통 사회의 德인 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예속과 굴종, 지배와 통치를 배제하는 의식의 자유로움, 생활규범의 정의로움을 뜻한다. 따라서 그 실천적 형태는 비판으로 나타나며, 모든 권위와 예속, 굴종적 구조에 대해 정당함, 곧 義를 요구할 수 있는 인간상을 요구한다.

“誠”은 水平的 관계내에서의 실천적 덕목으로서 자신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水平的·動態的 상황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상대적 성실성을 진솔하게 실현하지 않으면 고전적 의미의 孝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誠은 孝에 대칭 되는 개념이다. 자기에의 성실은 반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제각기의 분명한 자아, 그것에 대한 존중과 신뢰, 자신과 겸허 등의 誠으로 나타난다.

“創造”는 가장 중요한 현대적 덕목에 속한다. 動態的 상황에서의 성실성은 끊임없이 질서의 재창조가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현존 질서의 유지는 곧 사람을 靜態性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성은 일상적인 생활양식에서부터 세계인식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우리 시대의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간략하게 비교하여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관은 과연 제대로 정립이 되어질 것인가?

12) 鄭鎮弘(1982), 「韓國人的 價値觀」, 서울: 文音社, p.40 이하 참조

단기간에 걸친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인간성의 위축 및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이행이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될 어른이 없어지고, 경제적 기능도 아버지 중심에서 부부 모두가 생산자로 변하여 父權이 약화되고 또한 가족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박탈되었다. 따라서 성장하는 젊은이들은 예의 없이 불손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하며, 전통적인 예법이나 관습을 경시하여 편의주의에 따라 행하는 등 전통적 인간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둘째로 우리사회가 협동사회에서 경쟁사회로의 이행이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협동생활은 점차 사라져 어느 사회든 상대방과 싸워 이겨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경쟁의식이 팽배해졌고, 강박관념속에 항상 불안과 초조에 쫓기는 부도덕한 기계적 인간만을 양산해 내고 있다.

셋째로 덕치주의에서 법치주의에로의 이행이다. 덕망과 도덕으로 다스리던 평화로운 사회가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다보니 도덕과 양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사회의식은 퇴색되어지고 법만 피하면 된다는 물질·물상·물욕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넷째는 공동체의식에서 개인주의에로의 이행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바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흔히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한다.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 즉 가정·이웃·마을·학교·회사·단체·국가·세계가 모두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내가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함은 당연한 데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은 어떠한가?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한 개인이기주의, 집단 및 지역이기주의 등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애국심, 애향심, 애교심, 조직체의 단결 등을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이 개인이기주의에 의하여 잠식되어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고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생활이 몸에 배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196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의 여파로 물질주의, 편법주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등의 가치관이 사회

를 지배하게 되었다.<sup>13)</sup>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에 만연함으로써 본보기가 되어야 할 기성의 가치관이 퇴락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혼란 및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 2. 價値觀 教育의 役割

### 1) 價値觀 教育의 意義

가치관 교육이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정립하게하여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값있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일이라 하겠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급격한 사회변동이라 하겠다. 학교의 팽창, 매스미디어의 확대, 교통 수단의 발달, 의학의 발달, 소득의 상승, 생활의 기계화,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급속한 변화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 변동속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주요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학습 시기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고 가치판단과 행위의 내적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참여적 기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시기이며, 부모와의 심적 교류가 적어지고 부모의 평가 중요성이 감소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도기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깊이 이해시키며, 미래지향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一定한 가치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현실과 사회 세력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치 갈등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학교 교육의 목적이 된다. 즉 교육은 인간의 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의 情意的, 그리고 身體的인 특성에

13) 李相周(1986), "價値意識의 變化와 展望" 『解放 40年』,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결치는 전반적으로 조화된 인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가치관은 교육을 통하여 길러지며, 교육은 필연적으로 가치관과 밀착된다고 볼 수 있다. 가치관이 교수-학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때 가치관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며 가치관의 정립은 바른 교육에 의해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및 굳건한 자아를 定立시키기 위해서는 정의적 측면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좋은 사회적 환경을 갖추어 주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는 축소된 사회로서 안정된 교육 환경의 조성 및 인성 교육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때, 교육의 실질적 내용의 준거로 크게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하나는 지식과 기술의 측면에서의 교육적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교육의 측면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문의 학교교육이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치관의 습득을 위한 측면의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이론에서나 실제에 있어서 전인교육의 이상은 살아있으며, 전인(Complete person, Whole person)을 길러야 한다는 이상은 교육의 현실에서 더욱 절실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전인교육을 말할 때 지식·기술교육과 더불어 양날개를 이루는 것이 곧 가치관 교육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오늘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이 가치관의 혼란과 그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갖가지 폐단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 교육의 기본 원리로서 이른바 3X의 원리가 널리 인정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3X의 원리란 합리적 說服(Exhortation), 垂範(Example), 체험(Experience)의 3X를 지켜야 인간 교육, 도의 교육,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전인적 교육의 방법을 강조한 것이다.

즉 타일러서 이치를 깨닫게하고, 교사·부모·사회인 등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며 학생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스스로 체험하게 함으로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예로부터 동양의 여러나라에서 실천해 온 원리이기도 하며 새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3X의 원리는 이제까지의 가치관 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까닭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술선수범하는 면이 부족하고, 어른들이 表裏不同한 행동을 하면서 도덕과 윤리, 바른 가치관을 입으로만 강조한다는데 가치관 교육의 최대의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체험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데도 취약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렸을 때 어떠한 가치관을 실천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다 항구적인 가치로써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들은 그러한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데서 오늘날 가치관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작·수련·봉사 등의 체험을 통해서 몸에 배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을 것이다.

## 2) 個人的 主體觀 確立

현대사회의 理念인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들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개인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은 스스로의 판단 아래 자신의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인정받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율성, 자기 결단, 자주성 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이를 우리는 개인주의의 원리라고 부른다. 여기서의 개인은 사회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받고 또한 사회에 관련을 맺고 작용하는 개인을 말한다.<sup>14)</sup>

그런 의미에서 개인은 자기의지의 주관적인 자기결정과 자율을 강조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것을 주체의식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자 삐아제(J. Piaget)에 의하면 아동들의 완전한 자아의식은 12세에서 형성된다고 보았

14) 國民倫理會 編(1983), 「現代社會의 倫理와 國家」, 서울: 螢雪出版社, p.39.

는데 이 연령은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이다. 이런 시기에 주체의식 즉 자주성,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심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가치관을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3) 社會的 共同體觀 確立

흔히 우리가 사회적인 통합이라고 부르는 사회의 연대성 및 단결력은 그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전통 한국사회의 결집력은 가족집합체에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였던 충효사상이 근대화이후 그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사회는 당분간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대체 이데올로기를 찾아야만 했다.

정치교육이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을 결집시키는 의미를 수행해 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특히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은 이제 동년배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T.V나 신문, 잡지를 통한 영향력이 커진다. 또한 동년배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일수록 동년배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웃이 동질적인 경우에는 동년배의 영향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사회화를 보강해 준다. 반대로 정치사회화의 방향과 동년배들이나 이웃의 일반적인 政治性向이 이질적일 때 어린이들은 정치사회화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증을 보이며, 동년배들과의 접촉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서 가정의 정치사회화 영향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동년배들과 相合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sup>15)</sup>

이런 의미에서 본래 어린이들의 사회적공동체의식은 동년배와 가정의 정치사회화에 달려 있다. 어린이들의 가치관에서 분석될 공동체 의식은 바로 이러한 토대위에서 검토할 것이다.

### 4) 民族 - 國家觀 確立

15) 이택휘(1981), 「政治文化의 변용과 국민윤리의 역할」, 서울 : 국민윤리학회, p124



어떤 민족도 그 주체성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그 민족적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결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민족자존의 주체성이 있다. 오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민족주체성은 불가피한 것이며<sup>16)</sup> 그 위에 토대를 가진 국가 의식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사에 나타난 몇 개의 약소국가들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고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복지국가를 이루어 놓은 실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덴마크가 강국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국에게 국토를 일부 상실하고 나서 복지국가를 이루어 낸 과정과 2차대전의 패전국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중요한 의식 계기로서 주체적인 민족 - 국가 의식을 거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도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민족적인 자각과 적극적인 국민적인 결의를 바탕으로 한 근면, 자조, 협동의 실천원리로서 주체적, 자율적 복지사회 건설의 자활 운동이었다. 이 운동속에는 주체의식, 공동체의식, 국가의식이 민족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sup>17)</sup>

그러나 민족 - 국가의식은 초등학교에겐 매우 추상적인 가치관에 속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각적 주변세계에만 인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확인 가능한 것은 그들의 주변 사례 등을 통해서 느낀 감정으로만 국가의식이나 정치의식을 유추해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IV. 調查結果의 分析 및 解釋

앞에서 밝힌 연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전체적 경향과 지역별 · 학년별 · 성별로 분석 처리하였다. 그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6) 최창규, 「韓民族 近代化 政治論」, (서울: 新文學會, 1975), p11-44.

17) 國民倫理 編輯委員會 편, 「新國民倫理」, (서울: 대왕사, 1981), p.85



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해석 된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학년별·성별에서 有意한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정말 그렇다”에서 도시(44.1%)가 농촌(37.2%)보다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반반이다”에서는 농촌(19.9%)이 도시(16.3%)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농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 애정 표현이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정말 그렇다”와 “그런 것 같다”라는 응답에 6학년(77.0%)이 5학년(71.2%)보다 높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반반이다”에는 5학년(20.2%)이 6학년(15.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75.9%)가 여자(72.7%)보다 자아 존중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반응은 여자(9.5%)가 남자(6.4%)보다 높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과의 대화시간의 유무 및 부모의 생활 여유에 의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자율의식

아동들의 자율의식에 대한 반응은〈표4〉와 같다.

〈표4〉는 자율의식에 대한 조사로 「여러분은 집안 청소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집안이 어지러우면 보기 싫어서 스스로 한다”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시켜서 마지못해 한다”가 24.6%로 나타나고 있고, “집안 청소는 나하고 상관없으므로 거의 하지 않는다”도 6.8%로 나타나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과 학년별에서 유의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여러분은 집안 청소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 속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671 (61.3)	333 (62.2)	338 (60.5)	346 (60.8)	325 (61.9)	320 (58.5)	351 (64.2)
2	269 (24.6)	120 (22.4)	149 (26.7)	147 (25.8)	122 (23.3)	137 (25.0)	132 (24.1)
3	80 (7.3)	43 (8.0)	37 (6.6)	38 (6.7)	42 (8.0)	41 (7.5)	39 (7.1)
4	74 (6.8)	39 (7.3)	33 (6.2)	38 (6.7)	36 (6.9)	49 (9.0)	25 (4.6)
變因間 差異 檢證		df =3 x <sup>2</sup> =5.58 p =.2319		df =3 x <sup>2</sup> =3.41 p =.4907		df =3 x <sup>2</sup> =10.29 p =.0357	
* 答肢內容 1) 집안이 어지러우면 보기 싫어서 스스로 한다.(자율) 2)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시켜서 마지못해 한다.(타율) 3)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 한다.(자율) 4) 집안 청소는 나하고 상관없으므로 거의 하지 않는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70.2%)가 농촌(67.1%)보다 자율의식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타율 또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농촌(26.7%)이 도시(22.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6학년(69.9)이 5학년(67.5)에 비하여 자율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시켜서 마지못해 한다"에서 5학년(25.8)이 6학년(23.3)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 자율의식이 낮음을 엿볼 수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64.2%)가 남자(58.5)보다 월등하게 자율의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는 나하고 상관 없으므로 거의 하지 않는다"에서 남자(9.0%)가 여자(4.6%)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가정에서는 남녀간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 3). 책임 의식

아동들의 책임의식에 대한 반응은 〈표5〉과 같다.

〈표5〉 학교에서 낸 과제물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312 (28.5)	145 (27.1)	167 (29.9)	157 (27.6)	155 (29.5)	171 (31.3)	141 (25.8)
2	550 (50.3)	312 (58.3)	238 (42.6)	303 (53.3)	247 (47.0)	241 (44.1)	309 (56.5)
3	88 (8.0)	36 (6.7)	52 (9.3)	26 (4.6)	62 (11.8)	43 (7.9)	45 (8.2)
4	77 (7.0)	28 (5.2)	49 (8.8)	39 (6.9)	38 (7.2)	47 (8.6)	30 (5.5)
5	67 (6.1)	14 (2.6)	53 (9.5)	44 (7.7)	23 (4.4)	45 (8.2)	22 (4.0)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42.33 p =.0000		df =4 x <sup>2</sup> =25.30 p =.0000		df =4 x <sup>2</sup> =22.98 p =.0001	
※ 答肢內容 1) 거의 전부 내가 알아서 혼자 힘으로 한다. 2) 대부분 참고서(예를들면:백과사전,진과 등)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3) 언니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4) 친구들과 같이 도와가며 한다. 5) 하려고 애쓰지만 못한다.							

〈표5〉은 책임의식에 대한 조사로 「학교에서 낸 과제물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전부 혼자 힘으로 한다”가 28.5%, “참고서를 이용하여 해결한다”가 50.3%로 전체의 78.8%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부모 형제나 친구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책임을 완수한다고 응답을 하여 높은 책임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하려고 애쓰지만 못한다”인 경우도 6.1%를 보이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학년별·성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가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거의 전부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와 “대부분 참고서를 이용하여 해결한다”에서 도시(85.4)가 농촌(72.5)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함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되

며, “하려고 애쓰지만 못한다”에서 농촌(9.5)이 도시(2.6)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농촌이 과제이행에 있어서 소홀함을 엿볼 수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5학년(80.9)이 6학년(76.5)보다 책임의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언니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에서 6학년(11.8)이 5학년(6.9)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제 미이행 아동은 5학년(7.7)이 6학년(4.4)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56.5%)가 남자(44.1%)보다 책임감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과제 미이행 아동은 남자(8.2)가 여자(4.0)보다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도시 부모들은 가정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책임 의식을 강하게 심어 주고 있다고 추정되며, 또한 도시에서는 자립심과 독립심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4). 여가 선용의식

아동들의 여가 선용의식에 대한 반응은 <표6>와 같다.

<표6>는 여가선용의식에 대한 조사로 「여러분은 학교 끝난 후 저녁 식사시간 전까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주로 학원에 다닌다”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들의 제대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집에서 T.V나 책을 보며 혼자 지낸다”는 32.6%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같은 결과는 오늘날 사회 교육 환경이 아동기의 신체 발육과 건전한 인성 발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아동기의 특성상 가장 바람직한 여가 활용인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는 8.7%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박종휘의 연구(연세 대학교, 1991, 석사 논문 p28-29)에서 나타난 서울 지역 어린이의 여가 활용 상태와는 커다란 차이(22.8%)를 보이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과 성별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를 나타나고 있고, 학년별에서는 의미 있는 차가 없다고 나타나고 있다.

〈표6〉 여러분은 학교 끝난 후 저녁 식사시간 전까지 어디에 가장많은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108 (9.9)	38 (7.1)	70 (12.5)	49 (8.6)	59 (11.2)	43 (7.9)	65 (11.9)
2	412 (37.7)	226 (42.2)	186 (33.3)	223 (39.2)	189 (36.0)	198 (36.2)	214 (39.1)
3	95 (8.7)	31 (5.8)	64 (11.4)	51 (9.0)	44 (8.4)	64 (11.7)	31 (5.7)
4	357 (32.6)	174 (32.5)	183 (32.7)	187 (32.9)	170 (32.4)	178 (32.5)	179 (32.7)
5	122 (11.2)	66 (12.3)	56 (10.0)	59 (10.4)	63 (12.0)	64 (11.7)	58 (10.6)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25.36 p =.0000		df =4 x <sup>2</sup> =3.42 p =.4895		df =4 x <sup>2</sup> =16.86 p =.0021	
※ 答肢內容 1) 주로 집안의 일을 도와 드린다.    2) 주로 학원에 다닌다. 3) 주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   4) 주로 T.V나 책을 보며 혼자 지낸다. 5) 기타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과 성별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고 있고, 학년별에서는 의미 있는 차가 없다고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42.2%)가 농촌(33.3%)보다 학원 수강이 많은 반면, 주로 집안 일을 돕는다"는 농촌(12.5%)이 도시(7.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11.9%)가 남자(7.9%)에 비해 집안 일을 돕는 경우가 많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경우는 남자(11.7%)가 여자(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학업관

아동들의 학업관에 대한 반응은 〈표7〉와 같다.

〈표7〉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368 (33.6)	199 (37.2)	169 (30.2)	207 (36.4)	161 (30.7)	183 (33.5)	185 (33.8)
2	37 (3.4)	17 (3.2)	20 (3.6)	24 (4.2)	13 (2.5)	19 (3.5)	18 (3.3)
3	209 (19.1)	112 (20.9)	97 (17.4)	102 (17.9)	107 (20.4)	93 (17.0)	116 (21.2)
4	90 (8.2)	37 (6.9)	53 (9.5)	55 (9.7)	35 (6.7)	57 (10.4)	33 (6.0)
5	390 (35.6)	170 (31.8)	220 (39.4)	181 (31.8)	209 (39.8)	195 (35.6)	195 (35.6)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12.49 p =.0140		df =4 x <sup>2</sup> =13.84 p =.0078		df =4 x <sup>2</sup> =8.96 p =.0619	
※ 答肢內容 1) 좋은 고등학교·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이다. 2)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3)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4)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이다. 5) 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이다.							

〈표7〉는 학업관에 대한 조사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가 33.6%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과열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인 “인격 완성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아동은 19.1%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학년별에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성별에서는 의미 있는 차가 없다고 나타났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가 농촌(30.2)이 도시(37.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에서는 농촌



(39.4%)이 도시(31.8%)보다 높게 보이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6학년이 “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학년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21.2%)가 남자(17.0%)에 비해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응답을 많이 보이고 있다.

### 6). 신앙의 유무

아동들의 신앙유무 조사에 대한 반응은 <표8>과 같다.

<표8> 여러분들은 종교(신앙)를 가지고 계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773 (70.7)	407 (76.1)	366 (65.5)	393 (69)	380 (72.4)	373 (68.2)	400 (73.1)
2	321 (29.4)	128 (23.9)	193 (34.5)	176 (31)	145 (27.6)	174 (31.8)	147 (26.9)
變因間 差異 檢證		df =1 x <sup>2</sup> =16.26 p =.0003		df =1 x <sup>2</sup> =2.26 p =.3222		df =1 x <sup>2</sup> =4.05 p =.1316	
⇒ 答肢內容							
1) 예				2) 아니오			

<표8>은 아동들의 신앙 유무에 대한 조사로 「여러분은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70.7%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에 응답하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으나, 학년별·성별에서는 유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에서 도시(76.1%)가 농촌(65.5%)보다 월등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많으며, 학년별에서는 6학년(72.4%)이 5학년(69%)보다, 성별에서는 여자(73.1%)가 남자(68.2%)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7). 신앙관

아동들의 신앙관에 대한 반응은 <표9>와 같다.

<표9> 왜 종교(신앙)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89 (8.1)	43 (8.0)	46 (8.2)	38 (6.7)	51 (9.7)	46 (8.4)	43 (7.9)
2	314 (28.7)	145 (27.1)	169 (30.2)	173 (30.4)	141 (26.9)	170 (31.1)	144 (26.3)
3	18 (1.6)	9 (1.7)	9 (1.6)	11 (1.9)	7 (1.3)	10 (1.8)	8 (1.5)
4	627 (57.3)	320 (59.8)	307 (54.9)	321 (56.4)	306 (58.3)	297 (54.3)	330 (60.3)
5	46 (4.2)	18 (3.4)	28 (5.0)	26 (4.6)	20 (3.8)	24 (4.4)	22 (4.0)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3.85 p =.4261		df =4 x <sup>2</sup> =5.42 p =.2460		df =4 x <sup>2</sup> =4.30 p =.3669	
※ 答肢內容 1)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이다. 2)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3)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이다. 4) 내 자신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5) 옆에서 자꾸 권하므로 마지 못해서이다.							

<표9>는 신앙관에 대한 조사로 「왜 종교(신앙)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내 자신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가 57.3%,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가 28.7%, “주위에서 자꾸 권해서”는 4.2%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들의 신앙관(86.0%)은 매우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에 농촌(30.2%)이 도시(27.1%)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내 자신을 깨

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에서는 도시(59.8%)가 농촌(54.9%)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이다"에 6학년(9.7%)이 5학년(6.7%)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여 학년이 높을수록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행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에 남자(31.1%)가 여자(26.3%)보다 높은 응답율을 나타나고 있어 소박하고 단순한 마음이 엿보이고 있으며, "내 자신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에 남자(54.3%)가 여자(60.3%)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앙관이 보다 진지하고 건전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社會的 共同體觀

### 1). 교우의식

아동들의 교우의식에 대한 반응은 <표10>과 같다.

<표10>은 교우의식에 대한 조사로 「여러분들은 학급의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한다"에 82.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친구에 대한 의식은 바람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반면, "같이 있는 동안만 친하게 지내야 한다"도 6.8%를 보여 이기적인 면도 엿볼 수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학년별·성별 모두에서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친구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아동은 농촌(4.3%)이 도시(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필요할 때만 친구 사이로 지내겠다"에 응답한 아동을 보면 농촌(5.7%)이 도시(3.0%)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여 의외로 농촌이 도시보다 교우관계를 맺는 동기가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필요할 때만 친구 사이로 지내겠다"란 아동도 농촌(5.7%)이 도시(3.0%)보다, 6학년(5.0%)이 5학년(3.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외

로 농촌이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을 따지며 교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석 해 볼 수 있다.

〈표10〉 여러분들은 학급의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906 (82.8)	447 (83.6)	459 (82.1)	482 (84.7)	424 (80.8)	453 (82.8)	453 (82.8)
2	74 (6.8)	42 (7.9)	32 (5.7)	36 (6.3)	38 (7.2)	41 (7.5)	33 (6.0)
3	39 (3.6)	15 (2.8)	24 (4.3)	16 (2.8)	23 (4.4)	23 (4.2)	16 (2.9)
4	48 (4.4)	16 (3.0)	32 (5.7)	22 (3.9)	26 (5.0)	22 (4.0)	26 (4.8)
5	27 (2.5)	15 (2.8)	12 (2.1)	13 (2.3)	14 (2.7)	8 (1.5)	19 (3.5)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8.73 p =.0682		df =4 x <sup>2</sup> =3.63 p =.4584		df =4 x <sup>2</sup> =6.93 p =.1393	
※ 答肢內容 1) 언제까지나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한다. 2) 학교 다니는 동안만 친하게 지내야 한다. 3) 나의 경쟁상대이므로 겉으로만 친하게 보일려고 한다. 4) 필요할 때는 가까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5)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으며 별로 관심이 없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언제까지나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한다”에서 5학년(84.7%)이 6학년(80.8%)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학년은 6학년(4.4%)이 5학년(2.8%)보다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년이 올라 갈수록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진정한 우정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필요할 때만 친구 사이로 지내겠다”에서는 6학년(5.0%)이 5학년(3.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외로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을 따지며 교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석 해 볼 수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경쟁 상대이므로 깊은 우정을 키울 필요는 없다”에 남자(4.2)가 여자(2.9)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으며 별로 관심이 없다”에서 여자(3.5)가 남자(1.5)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

이고 있다.

## 2). 교우간의 신뢰의식

아동들의 교우간의 신뢰의식에 대한 반응은 <표11>과 같다.

<표11> 절친한 친구가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나 혼자 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47 (4.3)	25 (4.7)	22 (3.9)	28 (4.9)	19 (3.6)	32 (5.9)	15 (2.7)
2	225 (20.6)	96 (17.9)	129 (23.1)	129 (22.7)	96 (18.3)	125 (22.9)	100 (18.3)
3	700 (64.0)	359 (67.1)	341 (61.0)	353 (62.0)	347 (66.1)	335 (61.2)	365 (66.7)
4	112 (10.2)	49 (9.2)	63 (11.3)	54 (9.5)	58 (11.0)	50 (9.1)	62 (11.3)
5	10 (0.9)	6 (1.1)	4 (0.7)	5 (0.9)	5 (1.0)	5 (0.9)	5 (0.9)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7.12 p =.1296		df =4 x <sup>2</sup> =4.99 p =.2877		df =4 x <sup>2</sup> =11.49 p =.0215	
※ 答肢內容 1) 절친하니까 무조건 모른체 한다. 2) 친구가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모른체 한다. 3) 친구더러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설득한다. 4) 선생님께 먼저 알려야 한다. 5)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절교해야 한다.							

<표11>은 친구간의 신의에 대한 조사로 「절친한 친구가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나 혼자 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설득하겠다”가 64.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친구의 잘못을 직접 고쳐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면을 엿볼 수 있고, “친구가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모른체 한다”에 20.6%의 응답을 보여 의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 지역별·학년별에서는 유의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모른 체 하겠다”에서 농촌(27.0%)이 도시(22.6%)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여 의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설득하겠다”는 응답은 도시(67.1%)가 농촌(61.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 어린이가 적극적이고 타협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성별에서는 “친구의 잘못을 모른 체 하겠다”에서 남자(28.8%)가 여자(21.0%)보다 높게 응답을 보여 남자가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친구를 설득하겠다”에서는 여자(66.7%), 남자(61.2%)로 여자가 높은 응답을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적극적이고 자기의 설득력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 3). 질서의식

아동들의 질서의식에 대한 반응은 <표12>과 같다.

<표12> 학교 수돗가에 친구들이 많이 모여 들었을 때 차례를 지키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535 (48.9)	320 (59.8)	215 (38.5)	264 (46.4)	271 (51.6)	237 (43.3)	298 (54.5)
2	399 (36.5)	166 (31.0)	233 (41.7)	232 (40.8)	167 (31.8)	212 (38.8)	187 (34.2)
3	122 (11.2)	37 (6.9)	85 (15.2)	56 (9.8)	66 (12.6)	75 (13.7)	47 (8.6)
4	26 (2.4)	7 (1.3)	19 (3.4)	11 (1.9)	15 (2.9)	17 (3.1)	9 (1.6)
5	12 (1.1)	5 (0.9)	7 (1.3)	6 (1.1)	6 (1.1)	6 (1.1)	6 (1.1)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56.11 p =.0000		df =4 x <sup>2</sup> =10.36 p =.0347		df =4 x <sup>2</sup> =17.40 p =.0016	
▶ 答肢內容 1) 항상 차례를 지킨다.                                  2) 10회 중에서 7-8회는 지키는 편이다. 3) 차례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4) 빨리 하려고 차례를 무시한다. 5) 남들이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킬 이유가 없다.							

〈표12〉은 질서의식에 대한 조사로 「학교 수돗가에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차례를 지키십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항상 차례를 지킨다”에 48.9%, “10회 중에서 7-8회는 지킨다”에 36.5%를 나타나고 있다. 차례를 지키는 경우가 85.4%로 질서 의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자질은 바람직하게 길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11.2%는 차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본 생활 습관지도는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 지역별에서는 매우 높은 유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학년별·성별에서도 유의미한 차를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90.8%)가 농촌(80.2%)보다 훨씬 질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례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에는 농촌(15.2%)이 도시(6.9%)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 보면 “차례를 잘 지키는 편이다”에서 5학년이 87.2%, 6학년은 83.4%를 보이는 반면, “차례를 안 지키는 편이다”가 5학년은 11.7%, 6학년 15.5%를 보여 5학년이 질서 의식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88.7%)가 남자(82.1%)보다 차례를 잘 지키고 있으며, 차례를 무시하는 경우는 여자(10.2%)보다 남자(16.8%)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 4). 우애의식

아동들의 우애의식에 대한 반응은 〈표13〉과 같다.

〈표13〉은 형제간 우애 의식에 대한 조사로 「형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실을 나 혼자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부모님께 꾸중을 듣지 않도록 직접 형을 설득해서 해결하겠다”가 57.3%, “부모님께 말씀드려 해결한다”가 33.5%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언니와 동생 지간 매우 우애가 두텁고 정이 깊음을 엿볼 수 있겠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에서는 유의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과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표 13〉 형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실을 동생인 내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627 (57.3)	310 (57.9)	317 (56.7)	308 (54.1)	319 (60.8)	332 (60.7)	295 (53.9)
2	367 (33.5)	174 (32.5)	193 (34.5)	214 (37.6)	153 (29.1)	157 (28.7)	210 (38.4)
3	22 (2.0)	11 (2.1)	11 (2.0)	11 (1.9)	11 (2.1)	13 (2.4)	9 (1.6)
4	28 (2.6)	12 (2.2)	16 (2.9)	16 (2.8)	12 (2.3)	15 (2.7)	13 (2.4)
5	50 (4.6)	28 (5.2)	22 (3.0)	20 (3.5)	30 (5.7)	30 (5.5)	20 (3.7)
變因間 差異 檢證		df = 4 x <sup>2</sup> = 1.82 p = .7674		df = 4 x <sup>2</sup> = 11.15 p = .0249		df = 4 x <sup>2</sup> = 12.70 p = .0128	
※ 答肢內容 1) 부모님 모르게 형을 잘 설득해서 어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3) 형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 모른체 한다. 4)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니 신경을 안 쓴다. 5) 기타							

즉 학년별 비교에서는 “부모님 모르게 설득해서 해결하겠다”에서 6학년(60.8%)이 5학년(54.1%)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해결한다”는 5학년(37.6%)이 6학년(29.1%)보다 응답율을 높게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고학년일수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우애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성별 비교에서는 “부모님 모르게 설득해서 해결하겠다”가 남자(60.2%), 여자(53.9%)를 보이고 있어 남자가 훨씬 독립심이 강하고 義理感도 높음을 알 수 있겠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해결한다”가 여자(38.4%), 남자(28.7%)로 여자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依他心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5). 공중도덕관

아동들의 공중도덕관에 대한 반응은 <표14>와 같다.

<표14> 여러분은 공중도덕( 휴지 안 버리기, 교통규칙 지키기, 공공시설  
아껴 사용하기 등)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36 (3.3)	27 (5.0)	9 (1.6)	18 (3.2)	18 (3.4)	22 (4.0)	14 (2.6)
2	518 (47.3)	260 (48.6)	258 (46.2)	246 (43.2)	272 (51.8)	255 (46.6)	263 (48.1)
3	352 (32.2)	164 (30.7)	188 (33.6)	195 (34.3)	157 (29.9)	176 (32.2)	176 (32.2)
4	173 (15.8)	76 (14.2)	97 (17.4)	100 (17.6)	73 (13.9)	83 (15.2)	90 (16.5)
5	15 (1.4)	8 (1.5)	7 (1.3)	10 (1.8)	5 (1.0)	11 (2.0)	4 (0.7)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12.73 p =.0126		df =4 x <sup>2</sup> =9.53 p =.0491		df =4 x <sup>2</sup> =5.45 p =.2440	
※ 答肢內容 1)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      2) 가끔 가다가 어기지만 잘 실천하는 편이다. 3) 그저 반반이다.                      4) 생각은 하지만 잘 못한다. 5) 공중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표14>는 공중도덕 준수에 대한 조사로 「여러분은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잘 실천하는 편이다”에 50.6%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생각은 하지만 잘 못 한다”(15.8%)와 “아예 공중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1.4%)의 부정적 태도도 만만치 않게 보이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성별로는 유의한 차를 볼 수 없으나, 지역별과 학년별에서는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53.6%)가 농촌(47.8%)에 비해 “공중도덕을 잘 실천한다”에 응답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못한다”에서는 농촌(18.7%)이 도시(15.7%) 보다 적은 반응을 보여 공중도덕 실

천 현장은 도시에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6학년(55.2%)이 5학년(46.4%)보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고, 5학년(19.4%)이 6학년(14.9%)보다 공중도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공중도덕은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 보다 더 잘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6). 봉사의식

아동들의 봉사의식에 대한 반응은 <표15>과 같다.

<표15>은 봉사의식에 대한 조사로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자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한다”에 58.7%의 반응을 보여 자라나는 아동에게서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어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고, “나라에서 직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도 31.5%로 사회복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과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고, 학년별에서는 유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은 주위에서 구제해야 한다”가 도시(55.1%)에서 보다 농촌(62.1%)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농촌 아동이 정이 더 많고 사회 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나라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도시(36.6%)가 농촌(26.7%)보다 높게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65.4%)가 남자(51.9%)보다 “불우한 사람을 주위에서 도와야 한다”에 많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나라에서 구제해야 한다”에서는 남자(36.9%)가 여자(65.4%)보다 많은 응답율을 보여 남자가 여자보다 국가의 복지정책에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종휘(연세대.석사논문.1991)연구에서는 부자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경향이 26%, 국가 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62.6% 인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자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경향이 단지 6.5%이고 국가 사회에 기대하는 응답율이 90.2%로 나타나고 있다.

〈15〉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70 (6.4)	35 (6.5)	35 (6.3)	39 (6.9)	31 (5.9)	40 (7.3)	30 (5.5)
2	345 (31.5)	196 (36.6)	149 (26.7)	163 (28.6)	182 (34.7)	202 (36.9)	143 (26.1)
3	642 (58.7)	295 (55.1)	347 (62.1)	343 (60.3)	299 (57.0)	284 (51.9)	358 (65.4)
4	8 (0.7)	2 (0.4)	6 (1.1)	5 (0.9)	3 (0.6)	6 (1.1)	2 (0.4)
5	29 (2.7)	7 (1.3)	22 (3.9)	19 (3.3)	10 (1.8)	15 (2.7)	14 (2.6)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19.85 p =.0005		df =4 x <sup>2</sup> =6.51 p =.1641		df =4 x <sup>2</sup> =22.08 p =.0002	
※ 答肢內容 1) 돈 많은 부자들이 당연히 도와야 한다. 2) 가난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므로 나라에서 직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부자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4) 그들은 게으른 사람이므로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 5) 별로 관심이 없다.							

### 7). 사회관

아동들의 사회관에 대한 반응은 〈표16〉와 같다.

〈표16〉는 사회관에 대한 조사로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34.7%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그렇지 않다”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39%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들의 눈에 비친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38.0%)가 여자(31.4%)보다 사회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새싹이며 21세기의 주인공들에게 이 사회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 성인들이 각성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 8). 존경하는 교사관

아동들의 존경하는 교사관에 대한 반응은 <표17>와 같다.

<표17>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91 (8.3)	45 (8.3)	46 (8.2)	37 (6.5)	54 (10.3)	54 (9.9)	37 (6.8)
2	575 (52.6)	302 (56.40)	273 (48.8)	322 (56.6)	253 (48.2)	258 (47.2)	317 (58.0)
3	374 (34.2)	157 (29.3)	217 (38.8)	181 (31.8)	193 (36.8)	203 (37.1)	171 (31.3)
4	13 (1.2)	7 (1.3)	6 (1.1)	10 (1.8)	3 (0.6)	9 (1.6)	4 (0.7)
5	41 (3.7)	24 (4.5)	17 (3.0)	19 (3.3)	22 (4.2)	23 (4.2)	18 (3.3)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11.85 p =.0185		df =4 x <sup>2</sup> =14.08 p =.0070		df =4 x <sup>2</sup> =14.50 p =.0059	
※ 答肢內容 1)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2) 학생을 잘 이해해 주시고, 대화를 자주 해주시는 선생님이다. 3)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4) 예능,체능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5) 우리들을 믿고 하는대로 가만히 지켜보시는 선생님이다.							

<표17>는 존경하는 교사관에 대한 조사로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학생을 잘 이해해 주시고, 대화를 자주 해주시는 선생님”이란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보

이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응답이 34.2%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공부만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란 응답은 8.3%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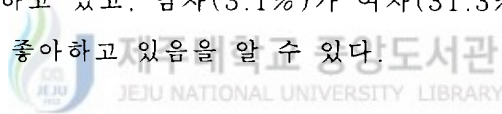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동들은 교사들에게 깊은 이해심과 잦은 대화, 격려의 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과 학년별·성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56.4%)가 농촌(48.8%)보다 교사의 이해심과 대화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으며,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아동은 농촌(38.8%)이 도시(29.3%)보다 높게 보이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6학년(10.3%)이 5학년(6.5%)보다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응답했고, 5학년(56.6%)이 6학년(48.2%)보다 이해심이 많고 대화를 자주 건네시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6학년(36.8%)이 5학년(31.8%)보다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58.0%)가 남자(47.2%)보다 교사의 이해심과 다정한 대화를 渴求하고 있고, 남자(3.1%)가 여자(31.3%)보다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교사를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은사관

아동들의 은사관에 대한 반응은 <표18>과 같다.

<표18>은 은사관에 대한 조사로 「길거리에서 은사님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얼른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가 70.3%로 나타났고, “나를 알아 보셨을 때 인사하겠다”가 16.5%이며,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가겠다”가 2.3%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은사님에 대한 공경심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겠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고, 학년별과 성별에서는 유의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90.5%)가 농촌(83.2%)보다 은사에 대한 존

경심이 높게 보이고 있고, “그 때 형편에 따라 하겠다”는 농촌(14.3%)이 도시(7.3%)보다 높게 보이고 있어, 은사 존경에 대한 의식은 도시에서 더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확실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아동은 농촌(14.3%)이 도시(7.3%)보다 많이 보이고 있어 농촌에서는 교사와 제자간의 친분이 덜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데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18〉 길을 가다가 은사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769 (70.3)	393 (73.5)	376 (67.3)	384 (67.5)	385 (73.3)	378 (69.1)	391 (71.5)
2	180 (16.5)	91 (17.0)	89 (15.9)	103 (18.1)	77 (14.7)	103 (18.8)	77 (14.1)
3	18 (1.6)	7 (1.3)	11 (2.0)	10 (1.8)	8 (1.5)	9 (1.6)	9 (1.6)
4	8 (0.7)	5 (0.9)	3 (0.5)	3 (0.5)	5 (1.0)	3 (0.5)	5 (0.9)
5	119 (10.9)	39 (7.3)	80 (14.3)	69 (12.4)	50 (9.5)	54 (9.9)	65 (11.9)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15.39 p =.0040		df =4 x <sup>2</sup> =5.75 p =.2184		df =4 x <sup>2</sup> =5.49 p =.2404	
※ 答肢內容 1) 얼른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겠다. 2) 나를 보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다가가서 인사하겠다. 3)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가겠다. 4) 안 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겠다. 5) 그 때 형편에 따라 하겠다.							

학년별과 성별 비교에서 “얼른 다가가서 인사를 하겠다”란 응답은 6학년(73.3%)이 5학년(67.5%)보다, 여자(71.5%)가 남자(69.1%)보다 높게 보이고 있으며, 그 때 형편에 따라 하겠다고 확고한 태도 결정을 못내린 아동은 5학년(12.4%)이 6학년(9.5%)보다, 여자(11.9%)가 남자(9.9%)보다 높게 보이고 있다.





업관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에 여자(45.8%)가 남자(42.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직업관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아동들의 직업관은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11). 장래의 희망 직업관

아동들의 직업관에 대한 반응은 <표20>과 같다.

<표20> 여러분은 장래에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46 (4.2)	21 (3.9)	25 (45.0)	18 (3.2)	28 (5.3)	31 (5.7)	15 (2.7)
2	467 (42.7)	233 (43.6)	234 (41.9)	202 (35.5)	265 (50.5)	244 (44.6)	223 (40.8)
3	89 (8.1)	41 (7.7)	48 (8.6)	58 (10.2)	31 (5.9)	39 (7.1)	50 (9.1)
4	336 (30.7)	159 (29.7)	177 (31.7)	213 (37.4)	123 (23.4)	155 (28.3)	181 (33.1)
5	156 (14.3)	81 (15.1)	75 (13.4)	78 (13.7)	78 (14.9)	78 (14.3)	78 (14.3)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1.56 p =.8142		df =4 x <sup>2</sup> =41.26 p =.0000		df =4 x <sup>2</sup> =9.88 p =.0425	
* 答肢內容 1) 대대로 이어온 집안의 가업                      2)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3) 대중의 인기가 높은 직업                      4)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업 5)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표20>은 장래의 희망 직업관에 대한 조사로 「여러분은 장래에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에 42.7%,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업"에 30.7%,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에 14.3%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대로 이어온

집안의 가업을 택하겠다"에는 4.2%를 나타내고 있어 부모의 직업에 대한 매력과 자긍심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안언모(청주대.석사논문.1995. p.58)의 연구에 의하면 충청 북도에서는 자유업(37.8%)이 공식생활(32.3%)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학년별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 가업에 대한 긍지는 농촌(4.5%)이 도시(3.9%)보다 높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선호도는 도시(43.6%)가 농촌(41.6%)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업에 대한 반응은 농촌(31.7%)이 도시(2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에는 6학년(50.5%)이 5학년(35.5%)보다 훨씬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유업에서는 5학년(37.4%)이 6학년(23.4%)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중의 인기가 높은 직업에서는 5학년(10.2%)이 6학년(5.9%)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가업에 대한 긍지감은 남자(5.7%)가 여자(2.7%)보다 높게 보이고 있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에는 남자(44.6%)가 여자(40.8%)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업에 대한 선호도는 여자(33.1%)가 남자(28.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民族 - 國家觀

#### 1). 정치가에 대한 신뢰도

아동들의 정치가에 대한 의식 조사의 결과는 <표21>와 같다.

<표21>는 정치가에 대한 의식 조사로 「우리 나라의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익 보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에 응답한 아동이 30.9%이고 "그렇지 않다"



박종휘(연세대.석사논문.1991.p43)의 연구에서 서울 지역은 정치가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가 5학년(43.3%)보다 6학년(62.4%)이 높게 나타나고 학년일수록 정치가의 행동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치가들의 의견 대립 원인에 대한 견해

아동들의 “정치가들의 의견 대립 원인에 대한 견해” 조사 결과는 <표22>과 같다.

<표22> 정치가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340 (31.1)	173 (32.3)	167 (29.9)	152 (26.7)	188 (35.8)	173 (31.6)	167 (30.5)
2	166 (15.2)	89 (16.6)	77 (13.8)	94 (16.5)	72 (13.7)	96 (17.6)	70 (12.8)
3	263 (24.0)	146 (27.3)	117 (20.9)	142 (25.0)	121 (23.0)	118 (21.6)	145 (26.5)
4	159 (14.5)	56 (10.5)	103 (18.4)	89 (15.6)	70 (13.3)	76 (13.7)	83 (15.2)
5	166 (15.2)	71 (13.3)	95 (17.0)	92 (16.2)	74 (14.1)	84 (15.4)	82 (15.0)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21.01 p =.0003		df =4 x <sup>2</sup> =10.87 p =.0280		df =4 x <sup>2</sup> =7.28 p =.1217	
* 答肢內容 1)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자기 출신 지역의 발전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3)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기 때문이다. 4) 이유를 잘 모르겠다. 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표22>은 정치가들의 의견 대립 원인에 대한 견해 조사로 「정치가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가 31.1%이고, “자기 출신지역 및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견 대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가 39.2%로 대체로 의견 대립 원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반면, 14.5%의 아동들은 정치가들에 대해 별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거나 설문 내용이 어린이들의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박종휘의 연구(1991)에 의하면 서울지역 어린이들은 정치가들의 의견 대립 원인을 국민의 행복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 달라서 15.4%, 자기의 출신지역 및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54.7%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 어린이에 비해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감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과 학년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별에서는 유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32.3%)가 농촌(29.9%)보다 정치가들의 의견 대립 원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정치가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농촌(35.4%)이 도시(23.8%)보다 매우 낮음을 엿볼 수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6학년(35.8%)이 5학년(26.7%)보다 의견 대립의 원인을 매우 생산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5학년(41.5%)이 6학년(36.7%)보다 정치가들의 의견 대립원인을 훨씬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3). 국가관



아동들의 국가관에 대한 반응은 <표23>과 같다.

<표23>은 국가관 조사로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습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꼭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가 46.4%, "될 수 있는 한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가 20.5%로서 66.9%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에는 27.6%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고, "아무 나라에 태어나도 상관 없다"에도 5.5%를 보이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과 학년별·성별 모두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에서는 농촌(70.1%)이 도시(63.6%)보다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이 잘 사

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에서는 도시(31.4)가 농촌(24.0%)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표23〉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508 (46.4)	239 (44.7)	269 (48.1)	237 (41.7)	271 (51.6)	272 (49.7)	236 (43.1)
2	224 (20.5)	101 (18.9)	123 (22.0)	106 (18.6)	118 (22.5)	114 (20.8)	110 (20.1)
3	60 (5.5)	27 (5.1)	33 (5.9)	27 (4.7)	33 (6.3)	35 (6.4)	25 (4.6)
4	302 (27.6)	168 (31.4)	134 (24.0)	199 (35.0)	103 (19.6)	126 (23.0)	176 (32.2)
變因間 差異 檢證		df =3 x <sup>2</sup> =11.86 p =.0186		df =3 x <sup>2</sup> =33.14 p =.0000		df =3 x <sup>2</sup> =13.27 p =.0100	
※ 答肢內容 1) 꼭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2) 될 수 있는 한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3) 아무 나라에 태어나도 상관없다. 4)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에 6학년(74.1%)이 5학년(60.3%)보다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에서는 5학년(35.0%)이 6학년(19.6%)보다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꼭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에서 남자(49.7%)가 여자(43.1%)보다 매우 높은 반응을 보여 높은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석되며,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에는 여자(32.2%)가 남자(23.0%)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4). 향토관

아동들의 향토관에 대한 반응은 〈표24〉와 같다.

〈표24〉는 향토관 조사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다”(19.7%), “될 수 있는 한 이곳에서 살겠다”(31.4%)로서 51.1%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기회만 있으면 떠나 살겠다”도 17.2%로 높게 반응을 보여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어린이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어린이도 22.4%를 보이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과 학년 그리고 성별 모두에서 커다란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24〉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216 (19.7)	117 (21.9)	99 (17.7)	87 (15.3)	129 (24.6)	117 (21.4)	99 (18.1)
2	343 (31.4)	189 (35.3)	154 (27.5)	162 (28.5)	181 (34.5)	193 (35.3)	150 (27.4)
3	102 (9.3)	54 (10.1)	48 (8.6)	58 (10.2)	44 (8.4)	64 (11.7)	38 (6.9)
4	188 (17.2)	87 (16.3)	101 (18.1)	115 (20.2)	73 (13.9)	66 (12.1)	122 (22.3)
5	245 (22.4)	88 (16.4)	157 (28.1)	147 (25.8)	98 (18.7)	107 (19.6)	138 (25.2)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25.38 p =.0000		df =4 x <sup>2</sup> =28.60 p =.0000		df =4 x <sup>2</sup> =34.12 p =.0000	
※ 答肢內容 1)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다.                      2) 될 수 있는 한 이곳에서 살겠다. 3) 아무 곳에서 살아도 상관 없다.            4) 기회만 있으면 떠나 살겠다. 5) 아직 모르겠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57.2%)가 농촌(45.2%)보다 자기 고장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보이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떠나 살겠다”에는 농촌(18.2%)이 도시(17.2%)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농촌(28.1%)이 도시(16.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6학년(59.1%)이 5학년(43.8%)보다 자기 고장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기회가 있으면 떠나 살겠다"는 응답율은 5학년(20.2%)이 6학년(13.9%)보다 높게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학년 일수록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심과 기대감이 높다고 해석 된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56.7%)가 여자(45.5%)보다 높은 애항심을 보였고, 여자(22.3%)가 남자(12.1%)보다 "기회가 있으면 떠나 살겠다"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자(25.2%)가 남자(19.6%)보다 결단력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 5). 동포의식

아동들의 동포의식에 대한 반응은 <표25>과 같다.

<표25> 북한 주민을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르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363 (33.2)	188 (35.1)	175 (31.3)	169 (29.7)	194 (37.0)	189 (34.6)	174 (31.8)
2	482 (44.1)	241 (45.0)	241 (43.1)	268 (47.1)	214 (40.8)	248 (45.3)	234 (42.8)
3	63 (5.8)	25 (4.7)	38 (6.8)	29 (5.1)	34 (6.5)	33 (6.0)	30 (5.5)
4	78 (7.1)	34 (6.4)	44 (7.9)	44 (7.7)	34 (6.5)	24 (4.4)	54 (9.9)
5	108 (9.9)	47 (8.8)	61 (10.9)	59 (10.4)	49 (9.3)	53 (9.7)	55 (10.1)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5.72 p =.2210		df =4 x <sup>2</sup> =8.62 p =.0713		df =4 x <sup>2</sup> =12.74 p =.0126	
✎ 答肢內容 1) 우리와 같은 동포, 형제로 생각한다. 2)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3) 나쁜 사람들이므로 우리의 적으로 생각한다. 4) 잔인하고 무섭다는 느낌이 든다. 5) 생각해 본적이 없다.							



〈표25〉은 동포의식 조사로 「북한 주민을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르는 느낌은 무엇입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다”(44.1%), “같은 동포·형제로 생각한다”(33.2%)로서 77.3%가 동포 의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반면, 12.9%만이 북한 주민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 지역별에서는 유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별과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 도시(80.1%)가 농촌(74.4%)보다 북한 주민에 대해 호의적이고, 농촌(14.7%)이 도시(11.1%)보다 북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북한 주민을 우리와 같은 동포·형제로 생각한다”에서 6학년(37.0%)이 5학년(29.7%)보다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 의식이 남자(79.9%)가 여자(74.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여자(15.4%)가 남자(10.4%)보다 북한 주민에 대해 배타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6). 통일관

아동들의 통일관에 대한 반응은 〈표26〉과 같다.

〈표26〉은 통일관 조사로 「남, 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61.7%),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11.2%)로서 72.9%의 어린이가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남북한 통일에 대해 기대와 낙관을 나타낸 반면, “경제적으로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6.8%), “사회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14.2%)로서 21.0% 어린이가 통일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과 학년별에서 유의 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도시(22.2%)가 농촌(19.7%)보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린이는 농촌(7.9%)이 도시(4.5%)보다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6학년(75.8%)이 5학년(70.2%)보다 통일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보이는 반면, 비관적인 반응은 5학년(23.7%)이 6학년(17.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26〉 남. 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675 (61.7)	332 (62.1)	343 (61.4)	336 (59.1)	339 (64.6)	346 (63.3)	329 (60.1)
2	122 (11.2)	60 (11.2)	62 (11.1)	63 (11.1)	59 (11.2)	69 (12.6)	53 (9.7)
3	74 (6.8)	36 (6.7)	38 (6.8)	45 (7.9)	29 (5.5)	41 (7.5)	33 (6.0)
4	155 (14.2)	83 (15.5)	72 (12.9)	90 (15.8)	65 (12.4)	63 (11.5)	92 (16.8)
5	68 (6.2)	24 (4.5)	44 (7.9)	35 (6.2)	33 (6.3)	28 (5.1)	40 (7.3)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6.40 p =.1708		df =4 x <sup>2</sup> =5.93 p =.2041		df =4 x <sup>2</sup> =10.93 p =.0273	
㉠ 答肢內容 1)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2)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3) 북한 지역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 4) 사회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75.9%)가 여자(69.8%)보다 통일에 대해 낙관적이고 기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여자(22.8%)가 남자(19%)보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거부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7). 통일의 저해요인 조사

아동들의 통일의 沮害要因觀에 대한 반응은 〈표27〉과 같다.

〈표27〉는 통일의 저해요인 조사로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전체적으로 48%가 “북한이 적화 통일의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35%가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기 때문이다”라고 정치지도자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도 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答肢	전체 N %	지역별		학년별		성별	
		도시 N %	농촌 N %	5학년 N %	6학년 N %	남자 N %	여자 N %
1	383 (35.0)	176 (32.9)	207 (37.0)	184 (32.3)	199 (37.9)	180 (32.9)	203 (37.1)
2	63 (5.8)	30 (5.6)	33 (5.9)	34 (6.0)	29 (5.5)	38 (6.9)	25 (4.6)
3	101 (9.2)	47 (8.8)	54 (9.7)	45 (7.9)	56 (10.7)	48 (8.8)	53 (9.7)
4	526 (48.1)	277 (51.8)	249 (44.5)	295 (51.8)	231 (44.0)	269 (49.2)	257 (47.0)
5	21 (1.9)	5 (0.9)	16 (2.9)	11 (1.9)	10 (1.9)	12 (2.2)	9 (1.6)
變因間 差異 檢證		df =4 x <sup>2</sup> =9.86 p =.0427		df =4 x <sup>2</sup> =8.26 p =.0825		df =4 x <sup>2</sup> =5.01 p =.2859	
※ 答肢內容 1) 남, 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기 때문이다. 2) 남, 북한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3) 강대국(미국,러시아,중국 등)들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4) 북한이 적화 통일의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5) 남한이 못사는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인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별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이는 반면, 학년별과 성별에서는 유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별 비교에서는 농촌(37.0%)이 도시(32.9%)보다 강하게 “정치가들의 잘못으로 통일이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도시(51.8%)가 농촌(44.5%)보다 북한쪽에 분단의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지속적인 분단의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에 6학

년(37.9%)이 5학년(32.3%)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북한쪽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5학년(51.8%)이 6학년(44.0%)보다 높게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통일이 장애 요인은 남북 지도자들에게 있다”에 여자(37.1%)가 남자(32.9%)보다 높게 반응을 보였으며, “통일의 장애 요인은 북한쪽에 전적으로 있다”에는 남자(49.2%)가 여자(47.0%)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V. 要約 및 結論

### 1. 要約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현상은 청소년들의 가치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고, 또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바람직한 가치관 교육을 위한 실제적 지도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관 교육의 중요한 시점인 초등학교 시절, 그들은 무엇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지역별·학년별·성별로 그 실태와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1) 개인적 주체관 2) 사회적 공동체관 3) 민족 - 국가관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제주도 지역의 4개교, 읍·면 외곽 지역의 12개교를 대상으로 1094명을 표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지역별·학년별·성별 응답자 반응에 대한 백분율과  $\chi^2$ 에 의한 유의도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個人的 主體觀

① 자아존중의식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신이 가정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고,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② 자아의식은 높게 형성되고 있었으나, 또 도시가 농촌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책임의식은 전반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시가 농촌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매우 높은 반응을 보여 책임의식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④ 여가선용의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원에 다니거나, T.V를 보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가를 제대로 선용 못하고, 학원으로 내몰리거나 따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여가를 제대로 선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⑤ 학업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에서는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 도시 어린이가 입시 열풍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⑥ 신앙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함께 생각하는 "올바른 삶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반응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신앙관은 매우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에서는 도시가 농촌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농촌 어린이가 도시 어린이보다 경제적으로 빈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농촌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 2) 社會的 共同體觀

① 교우 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교우는 형제처럼 지내야 한다는 응답이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게 교우 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안만 친하게 지내겠다는 응답도 다소 있어 교우관계가 타산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교우관계를 형제관계로 의식케 하는 동포의식 내지 동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교우간 신뢰 의식 조사에서 친구의 잘못을 혼자 알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설득하여 뉘우치도록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적 의리를 지켜 모른체 하겠다고 나타나고 있어 교우간 신뢰 의식은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 설득하여 뉘우치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보여주고 있다.

③ 질서 의식에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도 초등 학생들에게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어느 계층보다 바람직하게 길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서 의식은 도시가 농촌보다, 5학년이 6학년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형제 우애 의식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형제간 우애가 두텁고 정이 깊음을 보여주고 있고, 의리도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형제간 의리는 남자가 여자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도시가 농촌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⑤ 공중도덕 준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공중도덕을 무의식적으로 어기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도덕 의식은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봉사 의식 조사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주위의 이웃인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러한 의식은 농촌이 도시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5학년이 6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사회관에 대한 조사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보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라고 보는 응답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사회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이 도시보다, 5학년이 6학년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⑧ 존경하는 교사상에 대한 조사에서 따뜻한 사랑과 이해심이 많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공부만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교사는 이제 더 이상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⑨ 은사관에 대한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존경도를 나타내고 있고, 은사 존경에 대한 의식은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⑩ 직업관 조사로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의 질문에 아직도 많은 수의 아동이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응답은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관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⑪ 장래의 희망 직업관 조사에서는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장 높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 수익성이 높은 직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 3) 民族 - 國家觀

① 정치가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정치가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불신감마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시각은 도시가 농촌보다, 5학년이 6학년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② 정치가들의 의견 대립 원인에 대한 견해 조사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견해보다 자기 출신 지역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견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을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은 농촌이 도시보다, 5학년이 6학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가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도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③ 국가관 조사로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가란 물음에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관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더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는 견해도 27.6%나 보이고 있다. 조국에 대해 높은 자긍심은 농촌이 도시보다, 6학년

이 5학년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④ 향토관 조사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란 물음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새로운 외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애향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⑤ 동포 의식 조사로 북한 주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같은 동포이고 형제로 생각한다는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짙은 동포 의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수의 경우는 반감을 나타내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시가 농촌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⑥ 통일관 조사로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란 질문에 우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란 견해가 매우 높게 나타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소수의 경우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을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인 견해는 도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낙관적인 견해는 6학년이 5학년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보이고 있다.

⑦ 통일의 저해 요인 조사에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남침 야욕을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북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소수는 강대국들의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남침 야욕을 원인으로 보는 견해는 도시가 농촌보다, 5학년이 6학년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치가들의 잘못으로 보는 견해는 농촌이 도시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結 論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대 변혁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겸손과 양보의 미덕은 점차 사라지고, 욕구



충족과 성취 위주의 사회로 변모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가치 갈등과 혼란이 유발되고 있는데,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 교육의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한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주체관 영역 : 급속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개인적 주체관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정·사회에서 실시하는 가치관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확고한 자아개념과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교육의 강화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기본 생활 습관 훈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개인적 주체관이 점점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열악한 주위환경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라고 볼 때, 학교에서 보다 강화된 가치관 교육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본다.

2) 사회적 공동체관 영역 : 이 영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관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교우관계에도 이기적이고 타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더욱이 초등학교 5·6학년 시절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보다도 동년배 집단의 영향이 막대하므로 올바른 교우관계를 맺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또한 정치사회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때이므로 부모·교사·지도층인사 등 성인들이 진실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동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다고 본다.

3) 민족 - 국가관 영역 : 초등학생들에게 이 영역은 매우 추상적인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긍지와 민족자존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반면, 정치가의 행위와 그들의 의견대립현상에는 매우 부정적인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과 동시에 정치가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가치관은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학생의 가치관을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농촌학생의 가치관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촌

---

학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 參考 文獻

1. 國民倫理學會 編(1983), 『現代社會의 倫理와 國家』, 서울 : 형설출판사
2. 金盛一(1977), 『가치관 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韓國教育開發院
3. 朴容憲(1970), 『態도와 價値觀의 研究』, 서울 : 배영사
4. 朴容憲(1979), “全人教育의 理論과 實際”, 『價値觀의 教育』,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5. 孫仁銖(1982), 『韓國人의 價値觀』, 서울 : 문음사
6. 李相周(1986), “價値意識의 變化와 展望” 『解放 40年』,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7. 李澤輝(1981), 『政治文化의 變用과 國民倫理의 역할』, 서울 : 국민윤리학회
8. 張燦翊(1989), “現代社會와 價値觀”, 『首都 教育』 11月號,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9. 鄭鎮弘(1982), 『韓國人의 價値觀』, 서울 : 문음사
10. 車京守(1978), 『韓國教育의 社會的 課題』, 서울 : 배영사
11. 黃禎奎(1968), 『教育評價』, 서울 : 教育出版社,
12. 洪承稷(1972),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 서울 : 高麗大學校 출판부
13. 金東雲(1987) “한국 고등학생의 가치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4. 金斗煥(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5. 金丁澤(1993), “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대학원
16. 朴鐘徽(1991), “국민학교 아동의 가치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7. 朴燦旭(1993), “국민학교 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 실태 분석”,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8. 宋成均(1992), “국민학교 학생의 정치적 태도 형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 李太淵(1990),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교사 및 급우에 대한 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 張大榮(1982), “국민학교 학생의 가치관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1. 丁大勳(1989), “국민학교 아동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2. 崔明鎬(1992), “초등학생의 여가의식과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교원대학교 대학원
23. 崔惠卿(1987),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Abstract>

## A Study on the Children's VIEW OF VALUES in Elementary Schools

Kim, Yun-Hyun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Chang-Beom

It is told that the various opportunities to learn the view of values should be given above all to all th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in order to double, or triple,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This thesis was written surveying their present view of values first, and then scrutinizing and analyzing the various facts revealed according to some regional schools, their school years(5th & 6th grade), and the sex, so that we could get suggestions to seek a new direction for teaching the children values.

Therefore, I have surveyed it through many sheets of questionnaire with 25 questions each to understand their present view of values case by case. First of all, I sampled 16 small elementary schools in Cheju-Do and then made random sampling of 1094 pupils who seem to be old enough to have their own viewpoint of values. Thereafter, I inspected the differences of each item established by the method of Percentage and  $X^2$ .

The result is as follows:

1. Their viewpoint of Individual Identity: It is proved that this item has hardly been varied relatively among the children in spite of the rapid social development. By the way, some pupils in rural areas have responded to this les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

susceptibly than the other urban ones. In conclusion, teaching view of values has proved out in the children's home, school, and Community respectively.

2. Their view of community life: Even though it is susceptible to variation hour by hour with each social change, their view of this proved desirable especially on classmates' and brothers' intimate relation. The view of society, however, is shown negative. Therefore, adults' reflection on the behaviors is required to form it positively.

3. Their standpoint of their own country, Korea and people: National self-esteem is elevated highly among them. The children are proud of their nation, so that they could view their country favorably. In addition, politicians' usual action has caused most children to distrust them, and criticize them. Therefore, this result shows that their great awakening is required.



## 부 록

###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는 답, 틀린 답 또는 좋은 답이 없으니 잘 생각해 보고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곳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으며,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잘 읽고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질문지는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

1996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 윤 현 드림

※ 해당되는 곳에 O 표하여 주십시오.

1. 학교명 : (            ) 초등학교
2. 학   년 : 5학년(    ) 6학년(    )
3. 성   별 : 남자(    )   여자(    )

※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서 O표하여 주십시오.

1. 여러분은 자신이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말로 그렇다 ( )      (2) 그런 것 같다 ( )
- (3) 반반이다. ( )      (4) 안 그런 것 같다 ( )
- (5) 정말로 그렇지 않다 ( )

2. 여러분은 집안 청소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 속하십니까?

- (1) 집안이 어지러우면 보기 싫어서 스스로 한다. ( )
- (2)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시켜서 마지못해 한다. ( )
- (3)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 한다. ( )
- (4) 집안 청소는 나하고 상관없으므로 거의 하지 않는다.( )

3. 학교에서 낸 과제물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1) 거의 전부 내가 알아서 혼자 힘으로 한다. ( )
- (2) 대부분 참고서(예를 들면 : 백과사전, 전과 등)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 )
- (3) 언니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 )
- (4) 친구들과 같이 한다. ( )
- (5) 하려고 애쓰지만 못한다. ( )

4. 여러분은 학교 끝난 후 저녁 식사시간 전까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 (1) 주로 집안의 일을 도와 드린다. ( )
- (2) 주로 학원에 다닌다. ( )
- (3) 주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 ( )
- (4) 주로 텔레비전이나 책을 보며 혼자 지낸다. ( )
- (5) 기타 ( )

5.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이다. ( )
- (2)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 )
- (3)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 )
- (4)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이다. ( )
- (5) 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이다. ( )

6. 여러분들은 종교(신앙)를 가지고 계십니까? (1) 예 ( ) (2) 아니오. ( )

7. 왜 종교(신앙)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이다. ( )
- (2)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 )



- (3)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이다. (      )
- (4) 내 자신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      )
- (5) 옆에서 자꾸 권하므로 마지못해서이다. (      )
8. 여러분들은 학급의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언제까지나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한다. (      )
- (2) 학교 다니는 동안만 친하게 지내야 한다. (      )
- (3) 나의 경쟁상대이므로 겉으로만 친하게 보일려고 한다.(      )
- (4) 필요할 때는 가까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      )
- (5)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으며 별로 관심이 없다. (      )
9. 절친한 친구가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나 혼자 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절친하니까 무조건 모른 채 한다.(      )
- (2) 친구가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모른 채 한다. (      )
- (3) 친구더러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설득한다.(      )
- (4) 선생님께 먼저 알려야 한다.(      )
- (5)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절교해야 한다.(      )
10. 학교 수돗가에 친구들이 많이 모여 들었을 때 차례를 지키십니까?
- (1) 항상 차례를 지킨다. (      )
- (2) 10회 중에서 7-8회는 지키는 편이다.(      )
- (3) 차례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      )
- (4) 빨리 하려고 차례를 무시한다.(      )
- (5) 남들이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킬 이유가 없다.(      )
11. 형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실을 동생인 내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모님 모르게 형을 잘 설득해서 어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2)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
- (3) 형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 모른 채 한다.(      )
- (4)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니 신경을 안쓴다.(      )
- (5) 기타 (      )
12. 여러분은 공중도덕( 휴지 안 버리기, 교통규칙 지키기, 공공시설 아껴 사용하기 등)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 (      )
- (2) 가끔 가다가 여기지만 잘 실천하는 편이다. (      )
- (3) 그저 반반이다. (      )

- (4) 생각은 하지만 잘 못한다. (        )
- (5) 공중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        )
13.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돈 많은 부자들이 당연히 도와야 한다. (        )
- (2) 가난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므로 나라에서 직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
- (3) 부자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        )
- (4) 그들은 게으른 사람이므로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        )
- (5) 별로 관심이 없다.(        )
14.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당연히 그렇다. (     ) (2) 그런 것 같다.(     ) (3) 잘 모르겠다. (     )
- (4) 안 그런 것 같다. (     ) (5) 전혀 그렇지 않다. (     )
15.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        )
- (2) 학생을 잘 이해해 주시고, 대화를 자주 해주시는 선생님이다. (        )
- (3)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
- (4) 예능, 체능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        )
- (5) 우리들을 믿고 하는대로 가만히 지켜보시는 선생님이다. (        )
16. 길을 가다가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얼른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겠다.(        )
- (2) 나를 보았다고 생각되었을때는 다가가서 인사하겠다.(        )
- (3)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가겠다. (        )
- (4) 안 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겠다. (        )
- (5) 그때 형편에 따라 하겠다. (        )
17. 여러분은 직업에 귀하고 천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        ) (2)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        )
- (3) 반반 있다고 생각한다. (        ) (4)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        )
- (5) 잘 모르겠다. (        )
18. 여러분은 장래에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 (1) 대대로 이어온 집안의 가업 (        )
- (2)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        )
- (3) 대중의 인기가 높은 직업 (        )



- (4) 사회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
- (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
25.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남. 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기 때문이다. (        )
- (2) 남. 북한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        )
- (3)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등)들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
- (4) 북한이 적화 통일의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        )
- (5) 남한이 못사는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성으로 지도해 주신 안창범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밟는 동안 학문의 진수를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고성준 교수님, 강근형 교수님, 허정훈 교수님, 양방주 교수님, 장원석 교수님의 각별하신 지도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대학원 재학중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수찬 교장 선생님, 이재봉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창화 교감선생님, 고태순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김길현, 박요찬, 강영진, 김석홍, 송기임, 장정진, 신금이, 문영호, 조운경, 현숙자 선생님과 자료 처리에 기꺼이 응해 주신 김태수 선생님께도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대학원 진학에 심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고임숙, 양지혜, 고옥재 선생님의 성원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늘 고마우신 어머니님과 인생의 화원을 함께 가꿔나갈 사랑하는 아내,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인 기평·기영이와 함께 이 영광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丁丑年 7月

金 潤 鉉